

## 太陽人 여자환자의 임상적 治驗 4例

강태곤 · 김정주 · 김명균 · 배효상 · 박성식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 Abstract

#### A Case Report on the Four Taeyangin Female Patients

Kang Tae-Gon, Kim Jung-Ju, Kim Myung-Gune, Bae Hyo-Sang, Park Sung-Sik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

##### 1. Objectives

Taeyangin is more rare than other kinds of people of the Constitution in number. And there are few references on Taeyangin's diseases, symptoms, and characters. Therefore diagnosing and treating Taeyangin patients are very difficult. We think that our study might be helpful to make it easier to diagnose and treat Taeyangin.

##### 2. Methods

Among patients who have visited the Oriental Hospital of Dongguk University, four female patients were classified as Taeyangin. Their symptoms were lessened by treatment that is appropriate to Taeyangin. Thus, we report these four female patients' improvements of their conditions on stool, urine, infertility, menstruation, and skin. We looked over the other reports, in advance, to get more ideas on Taeyangin.

##### 3. Results

After treating four female patients with Taeyangin's treatment, we found out that it showed significant changes on stool and urine condition, and infertility, menstruation. After the treatment, urine came out very easily and bowel moved much better than before. Discharge from the womb also remarkably decreased. Even their skin turned out to be softer than before, which we did not expected.

##### 4. Conclusions

We obtained great results from treating four female patients with the Taeyangin's treatment. As there are few clinical studies on Taeyangin, more studies on Taeyangin will be needed so that we could get to know more on the mechanism of Taeyangin's physiology.

We can read the changes of urine and defecation after the Taeyangin's treatment in the books written by Dongmu, and we can ascertain it through our study. But more study on Taeyangin's physiology might be needed because we found out that the discharge from the womb or the condition of the skin was significantly improved after the treatment, which is not quite well revealed in the books written by Dongmu.

**Key Words** : Taeyangin Female, Stool, Urine, Infertility, Menstruation, Skin.

### I. 緒 論

東武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sup>1</sup> 「四象人辨證論」에서 “太少陰陽人 以今時目見 一縣萬人數 大略論

之 則太陰人五千人也 少陽人三千人也 少陰人二千人也 太陽人數 絶少 一縣中 或三四人 十餘人而已”라고 하여 타 체질에 비하여 太陽人이 희소함을 말하고 있다. 실제 임상에서도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에 비해 太陽人을 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막상 접한다 하더라도 치료가 쉽지만은 않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東武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sup>2</sup>에서 “我稟臟自是太陽人 雖終身以經驗 而終

• 접수일 2005년 10월 25일; 승인일 2005년 12월 5일  
• 교신저자 : 박성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 +82-31-710-3723 FAX : +81-31-710-3780  
E-mail : parkss@dongguk.ac.kr

不如古人爛高經驗 於太陰少陰少陽三種人病藥之熟審也 夫藥驗不廣者 病驗不廣故也”라 하여 자신이 비록 太陽人이지만 太陽人에 대한 藥의 경험이 넓지 못한 것은 病的 경험이 넓지 못하기 때문임을 언급하고 있다. 太陽人 치료의 경험을 넓히기 위해서는 太陽人 환자를 많이 접해 보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치료 전에 太陽人을 정확히 판별하는 것 또한 쉬운 문제는 아니다. 太陽人을 판별하기 위해 東武가 언급한 太陽人의 특징적 性質은 『東醫四象新編』<sup>3</sup>에서 “龍之性也”, 『東醫壽世保元』에서는 “疏通, 果斷”이라 하였으며, 體形은 『東醫壽世保元』에서 “太陽人體形氣像 腦額之起勢 盛壯 而腰圍之立勢 孤弱”라 하였다. 또한 太陽人 여자에 대하여는 “太陽女 體形 壯實 而肝小脇窄 子宮 不足故 鮮能生產 以六畜玩理 而太陽牝牛馬 體形壯實 而亦鮮能生產者 其理可推”라고 하였다. 그러나 李濟馬의 설명만으로 太陽人을 명확히 판별하기란 어렵다.

본 보고는 太陽人으로 진단하고 치료한 여자환자 4명에서 각각의 주소증 치료 중에 나타난 소변과, 대변, 피부상태의 변화와 太陽人 여성의 생리, 임신 등의 문제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또한 사상체질의학회지와 대한한의학회지에 앞서 보고된 6건의 太陽人 증례와 비교 고찰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 太陽人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II. 本 論

### <증례 1>

#### 1. 환자

김○○ (F/33)



Fig. 1. Anterior view



Fig. 2. Lateral view

#### 2. 주소증

어둔, 연하장애

#### 3. 발병일

2002년 8월 둘째 아이 분만 일주일 후.

#### 4. 초진소견(2004년 6월 3일)

2002년 발병 후 local 한의원에서 치료받고 증상 호전되었다. 2004년 1월 심하게 스트레스 받고 화를 낸 다음 다시 주소 증상 발생하였다. 2004년 4월 병원에서 Brain MRI 촬영 상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진단 받았으나 증상이 계속 있었으며, 2004년 5월 과로하고 감기 걸린 이후 증상이 더욱 심해졌다.

신장: 165cm

체중: 63.7kg

#### 5. 진단처방

설문지<sup>10</sup>를 통한 검사에서는 少陽人으로 판정되었으며 전반적인 인상도 少陽人으로 보였다. 성격상 일반적인 세상살이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으며, 자신의 주장이 강했다. 주소증과 상기와 같은 體形氣像과 容貌詞氣, 性質材幹을 바탕으로 太陽人 裏病 噎膈證으로 진단하고 獼猴藤植腸湯을 투여하였다.

#### 6. 치료 경과

##### 1) 2004년 6월 5일

치료 전보다 발음이 똑똑해 졌으며, 숨쉬기가 편하다고 말하였다.

##### 2) 2004년 6월 8일

발음 상태가 좋아 졌으며, 호흡도 양호해졌다. 소변량은 조금 늘었으며, 대변은 7일 만에 보았다고 하였다.

##### 3) 2004년 6월 10일

연하장애가 더욱 심해졌다.

##### 4) 2004년 6월 15일

연하장애가 호전되어 삼키는 것이 편해졌으며 6월 8일보다 소변량이 더욱 늘어났다. 대변량도 늘고 시원해졌다 하였으며, 말하기가 오전에는 편하고 오후에는 힘들다 하였다. 숨쉬는 것은 편안해

졌다.

5) 2004년 6월 17일

시원하게 마실 수는 없지만 사래 들리지는 않았다. 6월 11일 대변 후 대변을 보지 못하였으나 크게 불편해 하지는 않았다. 숨쉬기는 처음보다 많이 편해졌다고 하였다.

6) 2004년 6월 22일

1주일 만에 대변을 보았다. 처음보단 낮지만 여전히 삼키기 힘든 증상이 남아 있었다. 한 모금씩 물먹고 말하기가 편해 졌으나 오후에는 여전히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다.

7) 2004년 6월 24일

연하장애는 호전되었으나 어둔과 식욕부진의 증상은 크게 변화가 없었다.

<증례 2.>

1. 환자

임○○ (F/29)

2. 주소

불임

3. 발병일

2002년 결혼 이후 정상적인 부부생활에서 임신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4. 초진소견(2005년 8월 10일)

2002년 결혼 초기 몇 개월 간 남편이 피임을 했으나 그 후 산부인과에서 배란일 확인하여 임신하려 노력하였다. 2004년 임신이 되었으나 그 해 11월말 계류유산 되었다. 평소 냉이 많은 편이어서 2004년 냉 치료받고 호전되었으나 다시 냉이 생겼다. 2005년 봄 子宮筋腫 진단 받았으나 2개월 후 없어졌다고 하였다.

평소 口中泡沫의 증상이 있었으며 생리주기는 불규칙적이었다. 생리 1주일 전부터 고기가 많이 먹고 싶다고 하였다. 밥을 많이 먹어도(2-3공기/한 끼) 금방 다시 배고프고 식은땀이 나며 손발이 떨리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다고 하였다.

신장: 160.4cm

체중: 51.9kg

5. 진단

설문지<sup>10</sup>를 통한 검사에서는 少陽人으로 나타났으나 체형과 인상은 少陰人에 가까워 보였다. 전형적인 少陽人과 少陰人으로 보기엔 애매한 점이 많았다. 성격에 있어선 고집이 세고 과단성이 있었다. 상기와 같은 體形氣像과 容貌詞氣, 性質材幹과 주소증으로 유추하여 太陽人으로 판별하였다. 1년 이상의 정상적 부부생활에서 임신의 어려움이 있었기에 鮮能生産으로 진단하고 獼猴藤植腸湯을 투여하였다.

6. 치료경과

1) 2005년 8월 19일

服藥 후 처음 3일 간은 증상의 호전이 없었으나, 그 후 排便이 조금 쉬워졌다 (1회/1-2일). 服藥 후 소변 양이 많이 늘었으며 소변이 맑아졌다. 口中泡沫이 감소하였다. 평소 말을 많이 하면 침이 많이 생겼으나 服藥 후 그러한 증상이 감소하였다. 밥맛은 조금 줄었으나 기운은 더 생겼다.

2) 2005년 9월 2일

냉이 감소하였다. 大便은 1회/1-2일 정도를 유지하였다. 口中泡沫을 못 느꼈다. 소변 양이 늘어나는 느낌이 있어 화장실 자주 간다고 하였다. 저녁에 다리가 잘 붓는다고 하였다.

3) 2005년 9월 16일

9월 9일이 생리 예정일이었는데 생리를 하지 않아 약국에서 자가 임신 테스트 키트를 구입하여 확인한 결과 임신임을 알았다고 하였다. 산부인과 진료를 권하였다.

4) 2005년 9월 20일

산부인과에서 임신을 확진 받았다는 소식을 전화로 확인하였다. 임신 후 다시 냉이 많이 나온다고 하였다.

<증례 3.>

1. 환자

오○○ (F/19)

## 2. 주소

아토피 피부염(顔面部 濕疹性)

## 3. 발병일

10년 전(초등학교 때 발생. 중학교 때 심해짐. 양방치료 받았으나 호전 악화 반복됨.)

## 4. 초진소견(2004년 6월 23일)

피부가 건조하고 피부염의 증상이 있으나 소양감은 없었다.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였으며 생리통은 없으나 냉이 심한 편이라 하였다. 외모, 성격 등이 이모와 닮았는데 이모가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대변은 하루 한번씩 규칙적으로 본다고 하였다.

신장: 169cm

체중: 60.2kg

## 5. 진단

설문지<sup>10</sup>를 통한 검사에서는 太陰人<sup>10</sup>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체형은 少陰人<sup>10</sup>과 유사했으며, 눈빛이 강한 느낌이었으나 일반적인 소음인<sup>10</sup>보다 자신의 주장이 강했다. 그 외의 體形氣像<sup>10</sup>과 容貌詞氣<sup>10</sup>, 性質材幹<sup>10</sup>을 바탕으로 太陽人<sup>10</sup>으로 판단하고 獼猴藤植腸湯<sup>10</sup> 투여하고 채식, 조개류 위주의 식사를 권하였다.

## 6. 치료경과

### 1) 2004년 7월 1일

약 복용 후 피부염 증상이 완화되었다.

### 2) 2004년 7월 7일

7월 3일까지 증상 호전되어 피부염이 거의 없어졌으나 7월 3일에 빵 먹고 다시 심해졌다고 하였다. 수면은 평소보다 양호해졌으나, 소변량의 변화는 느끼지 못하였다.

### 3) 2004년 7월 28일

피부염의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다. 약 복용 중 생리했으나 평소보다 생리통이 심하지 않았으며 주기가 규칙적으로 바뀌는 것 같다고 하였다. 소변량이 많아지고 시원해졌다. 딱딱하게 느껴졌던 전신의 피부 상태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라 하였다.

### 4) 2004년 9월 21일

피부염의 증상은 거의 없는 상태로 유지되었으며, 치료 후 지속적으로 생리주기가 일정하게 되었다.

## <증례 4.>

### 1. 환자

박○○ (F/45)

### 2. 주소

面部的 發疹과 面胞(여드름 양상), 咽痛, 疲勞

### 3. 발병일

2005년 4월경.

## 4. 초진소견(2005년 5월 19일)

손발은 찻으나 추위보다 더위를 더욱 많이 탄다고 하였다. 평소 생리주기가 불규칙하고 냉이 많다고 하였다(미혼). 소변은 頻數한 편이고 대변은 하루 한번씩 규칙적으로 본다고 하였다. 평소 人蔘을 복용하면 發疹이 생긴다고 하였으며, 침이 자주 입으로 넘어오면서 빨려진다고 하였다. 육식을 전혀 못한다고 하였으며 다리가 무력한 느낌이 있다 하였다.

## 5. 진단

설문지<sup>10</sup>를 통한 검사에서는 少陰人<sup>10</sup>으로 나타났으며 환자의 첫 인상도 少陰人<sup>10</sup>으로 느껴졌으나 앉은 자세에서 少陰人<sup>10</sup>처럼 다소곳한 느낌이 없고 목부위의 상체가 건실해 보였다. 그 외의 體形氣像<sup>10</sup>과 容貌詞氣<sup>10</sup>, 性質材幹<sup>10</sup>을 바탕으로 太陽人<sup>10</sup> 裏病證<sup>10</sup>으로 진단하고 獼猴藤植腸湯<sup>10</sup>을 투여하였다.

## 6. 치료경과

2005년 6월 2일

얼굴에 여드름 거의 없어졌으며 피부가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생리가 아직 없고 냉도 여전하였으며 소변의 변화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 Ⅲ. 考察 및 結論

『東醫壽世保元』에서 太陽人의 病證은 解休證으로 대표되는 外感腰脊病과 噎膈證으로 대표되는 內觸小腸病으로 나뉜다. 현재까지의 太陽人에 대한 임상적 보고는 대부분 하나의 증례를 분석한 것으로, 임<sup>4</sup>의 解休病의 치험례와 김<sup>5</sup>, 황<sup>6</sup>, 진<sup>7</sup> 등의 噎膈病의 치험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박<sup>8</sup> 등의 太陽人의 素證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한 증례 이상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는 치험 3례를 비교 분석한 박<sup>9</sup> 등의 증례 보고가 있었다.

太陽人 환자에 있어 특정 질환의 치료를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각 증례의 치료 중에 관찰되는 공통적인 특징을 비교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보고에서는 어둔·연하곤란, 불임, 피부염, 面部 발진 등을 각각의 주소로 하는 4명의 太陽人 여성의 체질 진단과 대변, 소변, 피부, 임신·생리 등의 문제에 관하여 고찰해 보겠다.

먼저 太陽人 체질의 진단을 살펴보면, 본 보고에서 살펴본 4명의 여성 환자는 의사결정나무법에 의해 각각 少陽人(2명), 太陰人(1명), 少陰人(1명)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의사결정나무법에선 太陽人 항목이 없어 太陽人 체질 진단에 한계가 있었으며, 太陽人이 주로 어떠한 타 체질로 판별되는 경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결론도 내리기가 힘들었다. 앞서 사상체질의학회지에 발표된 황<sup>6</sup> 등과 진<sup>7</sup> 등의 太陽人 증례 보고에서도 QSCCⅡ를 이용하여 太陽人이 少陰人과 少陽人으로 판별되었던 것을 볼 수 있었다. 太陽人 체질의 판별은 의사결정나무법이나 QSCCⅡ 등의 객관적 설문지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힘들며, 太陽人의 특징적 病證을 바탕으로, 진료하는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太陽人 체질 판별에 있어서의 객관적 기준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보여 진다.

소변의 문제를 살펴보면, 『東醫壽世保元』에선 太陽人은 소변이 旺多하면 完實無病이라 하였으며 소변이 赤黃하면 病이 물러가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太陽人小便短澀者病也 二時間屢次則 非惡症也”라 하여 소변이

短澀한 것을 병으로 보았다. 腦額之起勢가 盛壯하고 而腰圍之立勢가 孤弱하여 上盛下虛한 太陽人에 있어 保命之主인 吸聚之氣가 충실해지면 下虛한 것을 보강해 줄 수 있는 下降之氣가 왕성하게 되어 소변이 宣通 된다고 볼 수 있다. 증례 1, 2, 3에선 獼猴藤植腸湯을 투여 후 소변 양이 증가하고 시원하게 소변을 본다는 변화가 있었다. 증례 4에선 소변의 변화가 없었으나, 평소 소변이 頻數하였으므로 吸聚之氣가 크게 손상이 되지 않았던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太陽人에 관한 임<sup>4</sup>, 박<sup>8</sup>, 박<sup>9</sup> 등의 보고에서도 배뇨 상태의 호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太陽人의 치료에 있어 소변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치료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太陽人 대변은 『東醫壽世保元』에서 “太陽人大便 一則宜滑也 二則宜體大而多也”라고 하여 대변이 부드럽게 나오고 형체가 크고 양이 많은 것이 좋다고 하였으나, “太陽人 有八九日大便不通證 其病 非殆證也”라 하여 8-9일 동안 대변을 보지 못하는 것도 큰 병이 아님을 언급하고 있다. 증례 1, 2에서 환자는 獼猴藤植腸湯 투여 후 대변의 횡수가 증가하고 시원하게 보았다는 변화가 있었다. 증례 3, 4에서는 평소 매일 한번씩 규칙적으로 대변을 보았기에 투약 후에도 크게 변화가 없었다. 太陽人에 있어서 며칠에 한번씩 배변을 하여도 큰 병이라 볼 수는 없으나 배변의 간격이 긴 환자에 있어 투약 후 배변의 간격이 짧아지며 시원하게 배변하는 변화는 있었다. 앞서 발표된 임상보고 중에서 임<sup>4</sup>, 김<sup>5</sup>, 진<sup>7</sup>, 박<sup>8</sup>, 박<sup>9</sup> 등의 보고에서도 太陽人의 치료 중 배변 상태의 호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배변의 간격과 쾌함의 정도가 太陽人 치료의 경과를 살펴봄에 임상적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太陽人은 後四海가 鍛鍊되어 생성되는 皮筋肉骨에서 볼 때, 肺黨인 皮가 다른 체질에 비하여 두드러진 특징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太陽人의 피부에 대하여 東武는 직접적으로 『東醫壽世保元』에서 “面色宜白 不宜黑 肌肉宜瘦 不宜肥”라 하였으며,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선 “太陽人 面色淡白則無病 黑則有病”, “太陽人少陰人 膚肉清瘦則無病 濁肥則有病”라 하여, 太陽人은 마르고 맑으며 흰색

의 근육과 피부가 좋으며 검고 탁하며 肥滿한 肌肉은 좋지 않음을 언급하고 있다. 즉 피부의 색과 肌肉의 비만정도에 관한 내용은 있으나 피부의 부드러움과 딱딱함에 관한 것은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임상에서 太陽人의 피부를 촉진 시 딱딱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증례 1, 2, 3, 4에서 모두 피부가 딱딱한 듯한 느낌이 있었다. 증례 3, 4의 太陽人 피부 질환에 있어선 彌猴藤植腸湯을 투여한 후, 공통적으로 환자들 스스로가 전신의 피부가 치료 전보다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김<sup>7</sup> 등에 의하여 太陽人 환자의 치료호전 경과 중 面垢가 밝아졌다는 보고는 있었다. 그러나 太陽人 치료에 있어 딱딱한 느낌이었던 피부의 상태가 부드러워지는 변화에 대해서는 보고 된 바가 없었다. 太陽人 피부의 딱딱함과 부드러움에 관한 부분은 좀더 많은 관찰과 연구를 통하여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太陽人 여성에 있어서 1901년의 『東醫壽世保元』 初版本에서는 “太陽人 體形 壯實 而肝小脇窄 子宮不足故 鮮能生產”라 하고 있지만, 1941년 韓斗正이 편집하고 保元契에서 발행한 판본에선 “太陽女 體形 壯實 而肝小脇窄 子宮 不足故 不能生產 以六畜玩理 而太陽牝牛馬 體形壯實 而亦不能生產者 其理可推”라 하여 ‘鮮能生產’과 ‘不能生產’의 차이가 있다. 증례 1에서 太陽人 여성은 두 번의 출산경험이 있었으며, 증례 2에서는 불임이 문제인 여성이었다. 증례 3과 4에서는 미혼으로 가임의 여부를 알 수는 없었다. 체질의 판별에 있어 太陽人 여성의 임신과 출산여부를 太陽人 판별의 절대적 기준으로 잡기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앞서 발표된 전<sup>7</sup>, 곽<sup>8</sup>, 박<sup>9</sup> 등의 보고에서 太陽人 여성 환자의 증례가 있었으며 전<sup>7</sup>, 곽<sup>8</sup> 등의 증례에선 임신과 출산이 원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太陽人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문제는 임상적으로 ‘鮮能生產’이 맞으리라 생각된다. 정상적인 임신을 한 증례 1을 제외하고 증례 2, 3, 4의 공통적인 부분은 생리가 불순하고 냉이 많다는 것이었다. 또한 증례 3에서 환자는 자신과 성격과 체형이 비슷한 이모가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東武의 저서에서 太陽人 여성의 생리에 관한 부분은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太陽人 여성은 肝이 작고 좁아서 子宮이 부족하므로 생리주기가 일정치 않으며 냉이 많을 것이라 추측이 가능하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病變 第二統』에서 “太陽人 財權酒色凡百內傷外觸 皆損肝 故太陽人 以肝臟剝削爲命脈長短”, “太陽人 肝臟十分圓全 而與肺相敵者 極完境人也 一半虧缺 而與肺讓倍者 極壞境人也 過此則死 以此推之 太陽人肝臟部一半 爲命脈實數 他臟倣此”라 하여 命脈實數를 太陽人의 肝과 肺의 장부대소 편차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東武는 체질의 命脈을 결정하는 관건을 소한 臟器의 상태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太陽人은 소한 臟器인 肝이 대한 臟器인 肺의 기운보다 최소 절반이상 유지되어야 된다. 따라서 太陽人 여자의 경우 보통 肝이 작고 좁아서 생리주기가 불규칙하고 냉이 많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유추 할 수 있지만, 命脈實數를 잘 조절하여 肝의 기운이 잘 유지된다면, 子宮의 기능도 원활하여 생리가 규칙적으로 되며 냉도 감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증례 2, 3, 4에서 彌猴藤植腸湯 투여 후 모두 생리상태가 호전되었다. 앞서 발표된 박<sup>9</sup> 등에 의한 보고에는 太陽人 치료 호전의 경과 중에 帶下의 양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太陽人 환자의 진단과, 대·소변, 임신·생리, 피부 등에 관하여 太陽人 여성 4 증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太陽人을 판별함에 필요한 腦額之起勢가 盛壯하고 腰圍之立勢가 孤弱한 體形氣像과, 長於疏通, 能於交遇하는 性質材幹, 그리고 『東醫四象新編』에서 언급되는 ‘龍之性’ 등의 부분은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밝히는 것이 어려운 점이 많았다. 다만 상기 증례의 太陽人들에 있어 체형은 少陰人이나 少陽人과 비슷하였으나 성격에서 고집이 세고 과단성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좀더 객관적인 太陽人 판별 기준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대·소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선 東武의 저서에서 보이던 내용을 임상적으로 확인 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피부에 관한 부분과 太陽人 여성의 냉과 帶下 등의 부분에 있어선 증례의 부족함으로 명확한 고찰에 한계가 있다. 피부의 변화에 대한 부분과 여성환자의 임신, 생리 등의 부인과적 문제

에 있어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IV. 參考文獻

1. 李濟馬 著. 동의학연구소 譯. 東醫壽世保元. 여강출판사, 서울, 2002:260, 276, 277, 280.
2. 李濟馬 著. 朴性植 譯解.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집문당, 서울, 2003:171, 172, 230, 231, 239, 346.
3. 元持常 著作兼 發行. 東醫四象新編. 文友社, 서울, 1930:3.
4. 林奎誠. 太陽人 解休病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1996;8(2):203-207.
5. 김경석, 이상룡, 정성민, 차재덕. 獼猴藤植腸湯으로 太陽人 裏病證을 치료한 치험 1례.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3):181-187.
6. 황민우, 이태규, 임진희, 이수경, 송일병. 소뇌경색으로 진단된 太陽人 噎膈證 환자의 치험례.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3):216-220.
7. 전수형, 이현민, 조훈석, 김종원. 太陽人 噎膈證 치험 1례. 사상체질의학회지. 2004;16(3):118-123.
8. 곽창규, 이의주, 송일병, 김경석. 太陽人 환자의 素症에 대한 증례보고.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3):146-152.
9. 박은경, 박성식. 太陽人 환자의 임상적 치료 3례. 대한한의학회지. 2001;22(4):164-170.
10. 박은경, 이영섭, 박성식. 의사결정나무법을 이용한 체질진단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144-155.